

# 말씀의 샘

## 순종과 축복 <신명기 28장 1~14절>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복을 받길 원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생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대다가 마음대로 복이 생기질 않습니다. 복은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종교적인 요소, 즉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며, 허무한 우상을 섬기기도 하며 그것들이 복을 가져다주면 잘 되지 않을까 의존하기도 합니다. 복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복을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최근 한국교회 쇠퇴의 원인을 기복신앙과 변영신학에서 찾으며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은 참 좋은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고 바라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기복적인 것은 정말 문제가 됩니다. 기복적인 신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을 받으려하는 것, 하나님보다 복을 우선으로 하는 것,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걸 구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가 정말 중요한데도, 그것보다 하나님에게서 복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복주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을 닮아가기 보다는 여전히 이기적이며 욕심이 커져가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을 구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이러한 차원에서 바르게 복을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누릴 줄 알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쌓아가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순종과 축복과의 관계를 두 가지의 견지에서 함께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순종은 복을 받을 그릇이며 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축복장입니다. 성경에 600가지가 넘는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들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순종”입니다.

**신명기 28:1**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에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말씀에 순종하면”으로 생각해도 의미에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네 여호와와 말씀을 청종하면”에서 “청종하다”를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듣고 움직이다, 순종하다**”로 그 의미가 번역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순종입니다. 그 복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라는 말씀은 복의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복 받을 존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존재가 복받을 존재가 되지만 하면 3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주시기 때문에 들어가도 나가도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축복하시니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든지, 옥에서 옥살이를 하든지 상관없이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신명기 28:4**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자녀가 무슨 대학을 나오게 중요하게 아니고 농업을 하든 목축업을 하든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 안에 뭐가 담기든 상관없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복받을 존재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신명기 28:6**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장소도 다 상관없다고 또 강조합니다.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니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무얼 하든지 전혀 상관없이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해서 받는 복입니다. 순종하는 존재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함으로 온전히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쫓아다니지 않고 축복이 따라오는 인생이 되어야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을 닦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불순종했는지 무엇을 순종하고 살고 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열쇠임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수없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천지창조를 보더라도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다음날 창조가 진행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진도가 나가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순종할 때마다 복을 주셨고 이삭도 야곱도 순종할 때마다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순종의 사건이었습니다. 유월절 순종한 사람은 죽음이 넘어가므로 구원의 감격을 맛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혼인잔치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마리아의 권면에 종들이 순종함으로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부터 순종하

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계속 소개되면서 이어집니다. 적들로부터 승리를 주시고 하는 일과 창고에 복을 주신답니다.

**신명기 28:9**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그러면서, 또 다시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말입니다.

**둘째, 나를 비울 때 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기 위해 알아야 할 구절이 꼭 있습니다.

**빌립보서 2: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 이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힘든 순종을 위해서 하신 일은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기까지 철저히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신지라 십자가 지시기 전날 ‘아버지여 이 순간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는 비우셨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힘을 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경건생활에는 진짜 중요합니다. 나를 비우지 못하니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너무 내 생각이 많고 내 계획이 뻘뻘하고 내 뜻이 분명하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할 것이 없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실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실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순종하고 축복을 받으므로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뜻이 있습니다.

**신명기 28:14**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순종과 축복의 결론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오직 섬길 수 있고 그분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6년 10월 2일 주일예배 이 강화 목사

## 2016. 10. 9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사모)

성 경 봉 독 ----- 시편 50장 14~15절, 23절

현 금 특 송 ----- 조선희 전도사

말 씀 선 포 ----- 이 강화 목사

"하나님께 감사하라"

축 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 수요일 오후 8:00

금요 예배 : 금요일 오후 8:00

새벽 기도 : 화요일~토요일 오전 6:00

